축구 명가 '동반 추락'… 자존심 되살릴까

3경기째 승리 없는 울산… 개막 5경기 무승 꼴찌 전북
불안한 시선 속 이달 6~7일 K리그1 6라운드 경기 관심

말 그대로 '축구 명가'의 동반 추락이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K리그1 3연패에 도전하는 울산 HD와 K리그 역대 최다 우승(9회)에 빛나는 전북 현대의 경기력을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유력한 우승 후보인 울산(승점 8)은 개막 2연승 직후 내리 3경기에서 2무 1패에 그치며 3위에 랭크돼 있고, 전북(승점 3)은 개막 5경기(3무 2패)째 승리 없이 '꼴찌'에 머물고 있다.

K리그 무대를 호령했던 '현대가(家) 듀오'가 2024시즌 초반에는 전술에 삐걱 소리를 내고 있다. 울산과 전북의 공통점은 수비 불안이다.

울산은 지난 2일 대전하나시티즌과 4라운드 원정 경기(0-2 패)에서 '핵심 센터백' 김영권의 패스 실수가 빌미가 돼 결승골을 내주고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역습에 의한 두 번째 실점에서도 김영권의 위치 선정이 아쉬웠다.

울산은 포항 스틸러스와의 개막전 승리(2-0) 이후 2~5라운드 4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하며 9골을 허용할 만큼 뒷문이 허술해졌다.

전북도 상황은 비슷하다. 개막 5경기 동안 클린시트(무실점 경기)가 하나도 없다. 5경기에서 4골을 넣는 동안 7골을 허용하는 등 공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에 따라 6~7일 펼쳐지는 하나은행 K리그1 2024 6라운드에서 울산과 전북이 자존심을 되살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크다.

먼저 울산은 6일 오후 2시 울산문수경기장에서 9위 수원FC(승점 6)와 홈 경기로 6라운드를 치른다.

울산은 수원FC와 역대 전적에서 11승 1무 1패로 앞선다. 수원FC에 패한 것은 2021년 7월 25일 홈에서 치러진 K리그1 20라운드(2-5패)가 유일하고, 이후 6연승을 따냈다.

최근 수원FC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개막전 승리 이후 4경기(3무 1패) 연속 무승이다. 두 팀 모두 반전이 절실한 터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최하위로 밀린 전북은 7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8위 강원FC(승점 6)를 상대로 시즌 첫 승리에 재도전한다.

강원은 지난 3일 대구FC와 4라운드에서 3-0 대승을 거두고 개막 5경기째 만에 마수걸이 승리를 따내며 '무승의 수렁'에서 벗어났다. 앞서 강원은 라운드까지 3무 1패로 첫 승리에 목이 말랐었다.

전북은 강원과의 역대 전적에서 22승 4무 8패로 앞서지만, 지난해 전적만 따지면 1승 2패로 뒤지는 터라 방심할 수 없다. 여기에 왼쪽 풀백 김진수가 제주 유나이티드와 5라운드에서 비신사적인 반칙으로 퇴장 당해 강원전에 나설 수 없는 것도 변수다. 연합뉴스

KLPGA 개막전… 최가빈, 첫날 깜짝 선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3년째 뛰는 최가빈이 KLPGA 투어 국내 개막전 첫날 깜짝 선두에 나섰다. 최가빈은 4일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쳐 리더보드 맨 윗줄에 자리 잡았다. KLPGA 제공. 연합뉴스

남녕고 유도, 전국체육고대회 종합우승

11개 메달… 3년 연속 쾌거
78kg급 김고은, 최우수 선수

제주 남녕고가 전국체육고체육대회 유도종목 남녀부 3년 연속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뤄냈다.

남녕고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울산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체육대회 유도 개인전에서 금 5개, 은 1개, 동 5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남·여부 종합 1위에 오르며 3년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여자부 +78kg급 김고은(1학년)은 1회전에서 경기체고 정선아를 상대로 되치기 절반에 이어 꺾기 한판으로 제압했다. 이어 2회전에서 경남체고 김하영에게 밭다리 절반승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여고부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남자부 -60kg급 강현호(3학년)는 1회전에서 광주체고 김승철에 지도승을 거둔 뒤 2~3회전을 꺾기와 조르기 한판승으로 장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6kg급 이재준(2학년), -73kg급 고지운(3학년), -81kg급 고호령(3학년)도 금메달을 따냈다.

이밖에 여자부 -70kg급 고미소(3학년)는 은메달을, -57kg급 정혜원(1학년), -63kg급 김민경(2학년), -78kg급 강주연(3학년), 남자부 -90kg급 이승헌(2학년), +100kg 정지환(2학년)은 동메달을 따내며 종합우승 3연패에 힘을 보탰다. 위영석기자

제주도청 자전거부, 전국사이클 종합 3위

김은송·오현지·이도연·이슬

김은송·오현지·이도연·이슬로 구성된 제주도청 자전거부가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종합 3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인천광역시 서운동국제벨로드롬경기장에서 열린 제23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첫날 4㎞ 단체추발에서 대구광역시과 국민체육진공단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제주도청 이슬은 또 같은 날 1㎞ 독주에서 황현서(대구시청)에 이어 2위에 올랐고, 31일 4㎞ 개인 추발에서 오현지는 동메달을 따냈다.

대회 4일째인 2일에는 옴니엄 포인트에서 김연경이 40점을 획득해 1위에 오르면서 옴니엄 종합에서는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대회 마지막에도 오현·이연경이 30㎞ 메디슨에서 31점을 획득하며 3위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제주도청 자전거부.

제주도청팀은 5~6일 국가대회 선발전에 참가, 제주 자전거의 위상을 높이는데 다시 도전한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도민체전서 꿈과 끼 펼쳐요"
학생참여 프로그램 참가접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제58회 제주도민체육대회 문화행사로 열리는 학생 참여프로그램 '꿈과 끼를 펼쳐보자!' 참가자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강창학종합경기장 설치무대에서 펼쳐지는 '꿈과 끼를 펼쳐보자!'는 노래·댄스·악기 연주 등 꿈과 끼를 갖고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이메일(leenayeon78@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경연을 통해 대상 1인(팀), 최우수상 1인(팀), 우수상 2인(팀), 장려상 3인(팀), 인기상 2인(팀), 응원상 1인(팀)등 총 10인(팀)을 선발, 도민체육대회 폐회식에서 시상한다.

도체육회는 이외에도 ▷직접 만드는 나만의 특별한 티셔츠 제작 ▷머루인형 만들기 체험 ▷친환경 화분 만들기 ▷어린이사생대회 등 다양한 학생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체육회 학교체육지원부(전화 064-717-7154)로 문의하면 된다. 위영석기자

배구여제 김연경, 태극마크 달고 마지막 경기

'배구여제' 김연경이 태극마크를 달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김연경의 소속사인 (주)라이언앳은 4일 "김연경이 6월 8일과 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벤트 경기 '김연경 초청 KYK 인비테이셔널 2024'에 출전한다"며 "한국 여자배구의 황금기를 이끈 국내 선수들과 전·현직 세계 스타플레이어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경기는 김연경의 국가대표 은퇴를 기념해 펼쳐진다"고 덧붙였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연경은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을 마친 뒤 태극마크를 반납했고, 흥국생명 소속으로 프로배구 V리그에서만 뛰었다.

김연경은 완전한 '선수 은퇴'도 고려하고 있다. 김연경은 2022-2023 시즌이 끝난 뒤 은퇴를 고민하다 흥국생명과 계약기간 1년, 총액 7억 7500만원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계약은 2023-2024 시즌을 끝으로 종료됐고, 원소속팀 흥국생명에 은퇴 여부를 두고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김연경이 선수 은퇴를 결정하면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은퇴 경기뿐만 아니라 선수 은퇴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여행업등록 제234호 기획영업보증보험 2억 가입 업체

제주직항 전세기
후쿠오카/온천 3일
단1회 (출발일 : 4월27일)
선착순 마감 999,000원

제주직항 (4월부터~)
대만 4일
(출발일 : 수 목 토 일)
투어마일리지 약6,667마일 적립
719,900원부터
대만 5일
(출발일 : 매일)
투어마일리지 약6,367마일 적립
689,900원부터

인천 출발
★베스트셀러대형기A330탑승★
호주(시드니) 7일
(출발일 : 4월부터~)
1,199,000원부터
■ 무조건출발보장 ■ 전일정4성 ■ 기간한정특가 ■ 시드니 완전일주 7일
베트남사파★힐링트래킹
하노이+사파 3박5일
(출발일 : 매일)
829,000원부터
#베트남사파 #판시판케이블카 #산악열차 #모노레일 #함종산 #야시장투어 #하노이시내관광
대련/북파+서파
백두산 완전정복+고구려 유적지 백두산 5일
(출발일 : 매일)
800,600원부터
#백두산 #대련 #서파+북파 #고구려유적지

지방 출발(부산)
나트랑/달랏 5일
(출발일 : 매일)
1,029,900원부터
#1일1간식 #케이블카 #달랏야시장 #레일바이크 #랑비앙전망대 #전신마사지
알뜰특가 여행핵심정보
장가계 원가계+천문산 4일
(준5성/케이블카)
749,900원부터
#장가계 #천문산 #천자산 #원가계 #백룡엘레베이터 #보봉호 #특식3회
노쇼핑/노옵션/노팁/낙타체험포함
몽골 6일 엘승타사르해+청헤르온천 4박6일 (5성호텔 1박+게르3박)
1,339,000원부터
#엘승타사르해 #무제한온천 #노쇼핑 #노옵션 #노팁 #ALL 포함

골 프
무제한 라운딩 가싼 쿤탄/3식포함/NO쇼핑
치앙마이 골프 5일
(출발일 : 매일) - 인천
674,100원부터
#태국 #치앙마이 #골프 #골프텔 # #가산 쿤탄 #가산 레가
풀빌라 다색골프
클락 골프 5일 조식 54홀
(출발일 : 매일) - 부산
809,900원부터
#클락골프 #매일다른골프장 #풀빌라 #54홀 #썬밸리
품격2色골프 36홀/영해/천태
청도 골프 3일
(출발일 : 매일) - 인천
949,900원부터

모두투어 예약센터 가자항공여행사 T. 1544-7535, 747-0404
·공통사항 – 왕복항공권,전일정호텔(2인1실),관광지입장료,일정의 식사포함,최소 10명 출발가능, 인솔자동행(부분별),유류할증료포함,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 – 비자대(부분별),기사/가이드경비 (부분별), 현지선택관광

고객센터: 064-747-0404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김현준 (주)모두투어네트워크 대표: 우종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5층 사업자 등록번호: 202-81-4529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중구 제03500호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1989-04(서울특별시 중구) 영업보증보험: 일반여행업보증 15억 1천만원, 기획여행업보증 7억원, 여행자보험 1억원 기입 출발지: 제주공항 교통: 항공/전용차량 숙소: 일급호텔이상(상품 일정에 준함) 식사: 상품에 포함(단, 자유일정시 불포함) 최소출발 기준인원: 있음(상품별 상이) 선택경비(선택관광):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음.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detour.com)를 참고해주세요. 가이드 및 기사경비: 현지 별도 지불(일부상품제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여행상품 가격 포함 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 개발 기금, 여행자보험, 식사요금, 현지관광지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